

광주 대표 특산품 무등산 수박 사라지나

재배농가 9가구로 줄고

생산량은 절반 가까이 감소

광주시·북구 지원도 역부족

광주지역 대표 특산품인 무등산 수박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광주시와 북구가 무등산 수박 개량·개발과 활성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마다 재배 면적과 재배 농가가 줄어 들면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광주시 북구 등에 따르면 5년 전 3000통이 생산되던 무등산 수박의 올해 생산량은 절반 수준인 1800통 수준에 그치는 등 해마다 생산량이 줄고 있다.

생산량이 3000통(2015년) → 2800통(2016·2017년) → 2700통(2018년) →

2500통(2019년)으로 매년 줄어들다 올해는 5년 전보다 생산량이 40%로 급감했다. 일명 '푸랭이'로 불리는 무등산 수박의 기원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된다.

1230~1240년경 고려인 홍다구가 몽고에서 종자를 가져와 개성지방에서 재배하다가 약 350년 전 무등산으로 옮겨와 재배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옛날 임금에게 진상되기까지 했고, 무등산 이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아 광주 지역의 대표 특산품으로 꼽혔다.

지난 1960년대 중반 이후 멸종위기에 있었던 무등산 수박은 지역특산물로 보존·개발하려는 광주시의 노력에 따라 본격적으로 재배되고 있지만 점차 생산량이 줄어 들고 있다.

생산량 감소의 요인으로는 기후변화와 줄어드는 재배면적, 특히 노령화되는 재배 농가 등을 꼽고 있다.

올해 급작스런 생산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긴 장마' 때문이라는 재배농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생산량 감소 원인은 생산 농가의 고령화에, 재배 방식이 힘 들고 수익이 적어 젊은 생산 농가가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1년 재배농가가 27가구였지만 2015년 13가구, 2016년 12가구, 2017·2018년 11가구, 2019·2020년 9가구로 줄고 있다.

농가들은 줄어드는 농촌 인구와 고령화에 무등산 수박의 재배 방법의 어려움도 한몫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순재래종 수박인 무등산 수박은 개량종보다 병해충에 약해 손이 많이 가고, 지름 1m·깊이 1.2m 이상을 파내고 심어야 한 데다 화학비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완숙한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등 재배 방법이 까다롭다. 재배 기간도 개량

종 수박에 비해 길고, 타 원예작물들이 오히려 수익이 좋기 때문에 신규 농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줄어드는 재배면적도 문제이다. 2017년 4ha였던 재배 면적은 올해 3.2ha로 줄어 들었다. 무등산 수박재배지는 평지가 아닌 해발 300m 이상 무등산 기슭의 통기성이 좋은 양토의 경사지이다. 한번 경작한 땅에서는 인삼처럼 3년이 지나 지력이 회복되어야만 다시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작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재배지가 무등산 국립공원내에 있어 농가들이 경작지를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다.

광주 북구청 관계자는 "생산·판매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농가에 매년 친환경농자재, 생산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고령화와 인구부족 등 농촌 자체의 한계적인 문제점은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떨어지고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3일 오후 순천 낙안면 이곡마을 배 과수원에서 농민이 강풍에 떨어진 배를 살펴보고 있다. /진진수 기자 jeans@



주저앉고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휩쓸고 간 3일 광주시 남구 승촌동에서 농민이 강풍으로 무너진 시설하우스를 살펴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태풍 할빈 전남 벼 침수 764ha·낙과 439ha

'마이삭' 피해 잇따라

강풍을 동반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전남지역에서는 가로수 쓰러짐과 농작물, 도로침수 등의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바비' 태풍에 이어 2일부터 3일 불어닥친 태풍 '마이삭'의 복상으로 전남은 인명피해는 없으나 가로수와 주택이 파손되는 등 53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순천과 강진, 여수일대에서는 3건의 간판이 파손됐으며 나주와 곡성에서도 주택이 파손되는 피해가 났다. 또 거센 강풍으로 벼 쓰러짐 764ha와 과수 낙과 439ha 등의 농작물의 피해도 컸다.

다만, 수산증양시설 피해는 현재 집계가 진행중인 상태로 최종 집계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수와 광양, 해남 일대에서는 정전으로 3300여 가구의 전기공급이 한때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나 현재는 북구가 완료된 상태다.

강풍으로 통제됐던 천사대교와 여수·고흥 지역 8개 해상교량은 태풍이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통행이 재개됐다.

한편 전남도는 신속한 피해상황을 파악한 뒤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특히 수산양식장의 경우 풍랑특보가 해제된 대로 본격적인 피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대학교 총장 선거 9월 23일 직선제로

온라인 투표...7·8일 후보등록

전남대학교 제21대 총장 선거가 오는 9월 23일 직선제로 치러진다.

전남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3일 '전남대 제21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공지를 통해 오는 23일을 투표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1차 투표는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 결선투표는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되, 1차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선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투표는 모바일 또는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데, 선거과정은 광주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한다.

이에 따라 후보등록은 오는 9월 7~8일에 해당 서류를 광주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5명의 교수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대학구성원별 선거인 참여비율은 교수 100%를 기준으로 강사 2%, 직원 14%, 조교 3%, 학생 2%이다.

김도형 총장임용추천위원장은 "대학 자치권의 시급적인 직선제 총장 선출을 8년 만에 다시 되찾아 무엇보다 기쁘다."며 "대학의 참 민주주의를 실현할 과업으로 여겨,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며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교사 해임은 정당...학교·법인 명예 훼손”

광주 사학법인 특정 개인에 1억 손해소 논란

광주교사노동조합 “사과 대신 소송”

광주의 한사학 법인이 교사 해임과 임용 취소 결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법인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특정 개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진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최근 개인 김모씨를 상대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교사 부당해임 논란과 관련해 해당 학교 학생들과 함께 학교의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온 인물로, 모 정당 청년당원으로 활동중이다.

학교법인은 소장에서 김씨가 학교 정문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정보통신망에 비판 글을

올렸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한 점을 들어 “(김씨가) 학교와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학교법인 측은 입장문 등을 통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정당한 징계 처분을 한 것일 뿐,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해당 법인으로 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됐으나 지난달 4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교사노동조합 측은 “이번 소송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학원 측이 새로 선택한 무리한 카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학교와 법인이 명예를 지키려면 손해-가압류 대신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에게 앞다투어 사과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자재·물품 구매 선정위 구성 등 개선책 필요

전남도교육청 청렴TF 보고서

전남교육청의 청렴한 교육 행정을 위해 선 관급자제 및 물품구매 선정위원회 구성과 부실 공사 업체 관련자와 공무원 엄중 문책 등 강력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반 도민 47명이 참여한 '청렴시민감사관'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청렴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설공사, 물품 계약 및 예산, 학교급식, 현장학습, 방과후학교 운영, 인사관리 등 6개 분야를 점검한 결과보고서를 내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결과보고서에서 “시설 분야에 대해 여전히 사용자의 불만이 많고, 부실 공사 등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공간혁신사업’과 ‘그린스마트 스킵 사업’ 등은 시설 분야 청

렴의 시급성이 될 것이며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준공검사, 사후 평가 등 단계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학교급식과 관련해 “식재료 납품업체와 학교급식 관계자 간 소통이 부족한 것이 청렴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간담회 개최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급식업체의 애로점을 청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과 강사 채용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교 관리자, 학부모, 학생 등 외부인사위원단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외부심사위원을 확대하고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인사와 관련해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환 인사 비리 고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간호학 학사학위프로그램 인증획득 '우수'

광주대학교 간호학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시행한 2020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오는 12월 11일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 5년간 유지된다.

지난 6월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2020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광주대는 이번 학사학위프로그램 인증획득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간호 분야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게 됐다.

올해 학과개설 11주년을 맞는 광주대 간호학과는 성과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최고 수준의 간호실습시설, 교수진을 갖추며 2020년 졸업생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장미영 광주대 간호학과 학과장은 “우리 대학은 우수한 인증프로그램을 통해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